2025년 / 1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17일(금) 13시 : 마을기록화 편집회의

■ 연구원 소식

- 신규 회원 안내

이번 주에는 모두 네분의 새로운 식구가 연구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고정수 님, 박문자 님, 양준승 님, 전현철 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번 주에 새로 식구가 되신 분들은 모두 변주승 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원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고정수 회원은 전주대학교를 퇴직하신 후 현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부에서 활동중이십니다. 양준승 회원 역시 전주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신 후 현재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십니다.

박문자 님은 전주의 명물인 가맥 가운데 이름난 전주시 삼천동 소재 <슬기네 가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현철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분 모두 연구원이 자리한 전주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연구원 사업의 현장에서 자주 자주 뵙길 소망합니다.

- 2024년 정기 이사회 개최

1월 11일 우리 연구원 정기 이사회가 전남 목포에서 1박 2일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김병문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건우 상임이사. 정경명, 변주승, 홍성덕, 김경수, 이향배, 이사 등 모두 일곱 분이 직접 참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사회에는 평의원회를 대표해 서정화, 황일진 두 평의원과 수도권 지부 박홍신 회원이 참관해 2024년 사업 평가와 2025년 사업계획 승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2025년 사업의 닻을 올린만큼 쉼없이 내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기획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기획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사업 시기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 번	사업명	개최 시기	비고
1	징검돌(도서 모집 및 기부)	1차: 1월 1일 ~ 4월 30일 2차: 5월 1일 ~ 12월 31일	연구기획실 주관
2	회원의 날	3월 29일 ~ 3월 30일	운영위원회 주관
3	평의원회	3월 29일	이사회 주관
4	도서 읽기 소모임	4월 1일 ~ 12일 31일	연구기획실 주관
5	사진 공모전	4월 7일 ~ 9월 6일	사무국 주관
6	문화강좌	1차: 5월 17일 2차: 10월 18일	연구기획실 주관
7	역사문화기행	1차: 6월 7일 ~ 8일 2차: 9월 6일 ~ 7일 3차: 11월 1일 ~ 2일	사무국 주관

■ 역사 속의 오늘

이원록 하늘의 별이 되다 – 1944. 1. 16.

책깨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에 쉬 입을 떼 아는 체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명이 아닌 수인번호로 바뀐 이름 석자로 우리 역사에 새겨진 사람. 그는 시인이면서 실탄 사격의 명사수이자 치열한 특공 훈련까지 받은 무장투쟁가였다. 일제를 비롯 반대 측에 서있던 이들에게 그는 시인의 얼굴을 한 불령선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이자 일본에서까지 명성을 떨친 퇴계 이황의 후손이다. 그의 형제는 다섯이었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문학적으로 뛰어나 이름을 남긴 이가 넷째 원조다.

소설 <태백산맥>에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문학가로 등장하고, 그의 유고집을 냈던 이원조는 명랑하고 재기발랄했던 반면 그는 좀 엄숙하고 우직한 편이었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 유학 후, 1927년에 귀국한 그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날려 버리려던 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1년 7개월의 첫 옥고를 치른다. 하지만 그가 이 의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눈이 뒤집힌 일본 경찰이 그야말로 저인망으로 훑어서 감방에 처넣은 결과일 뿐, 재판에서도 나온 판결은 "혐의 없음"이었다. 그 뒤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조선일보에 처음 시를 발표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는 '이활'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런데 광주학생운동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대구 격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또 옥살이를 한다.

264 수인번호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정설로 돼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역사를 도륙낸다는 뜻의 육사를 썼고 다음에는 "고기먹고 설사한다"라는 뜻의 육사를 썼다.

전자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그래봐야 별 수 없다'는 냉소가 아니었을지. 그러다가 한 친지가 "역사를 도륙낸다는 건 혁명의 뜻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이름을 써라"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육사로 스스로를 일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평탄케 하는' 노력에 몸을 던진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해방을 보지 못했다. 죽은 뒤에 발표된 그의 시 <광야>에서처럼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목놓아 불렀으나 그는 초인을 만나지 못했고 <청포도>에서처럼 하이얀 모시적삼 식탁에 올려 놓지 못했다.

1943년 조선에서 체포되어 거꾸로 중국으로 압송된 후 고문과 악형속에 1944년 1월 16일 짧지만 매서웠던 생명을 다한다. 1944년 오늘 이육사가 별이 되었다.